

대학생 스키리조트 이용객의 여가몰입, 여가이득, 생활만족과 재방문의도의 관계

Relationships Between Leisure Flow, Leisure Benefits, Life Satisfaction and Revisit Intention of College Student Customers in Ski Resort

장경수
상지대학교 관광학부

Kyoung-Su Jang(tourssam@sangji.ac.kr)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 스키리조트 이용객의 여가몰입, 여가이득, 생활만족과 재방문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스키리조트를 이용한 대학생 22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처리는 SPSS 2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신뢰도분석 실시하였고, LISREL 8.72를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몰입은 여가이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가몰입은 생활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가몰입은 재방문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여가이득은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여가이득은 재방문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생활만족은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스키리조트 | 여가몰입 | 여가이득 | 생활만족 | 재방문의도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leisure flow, leisure benefits, life satisfaction and revisit intension of college student customer in ski resort. To achieve the goal of this study, a total of 229 surveys collected from college students who visited the ski resort were utilized for analyzing. Frequency, reliabilit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SPSS 22.0 and LISREL 8.72.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leisure flow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leisure benefits. Second, leisure flow did not have influence on the life satisfaction. Third, leisure flow had positive effect on the revisit intention. Fourth, leisure benefit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life satisfaction. Fifth, leisure benefit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revisit intention. Lastly, life satisfaction did not have influence on the revisit intention.

■ keyword : | Ski Resort | Leisure Flow | Leisure Benefits | Life Satisfaction | Revisit Intention |

1. 서론

후기산업사회의 중심적 특성으로 부상한 여가현상은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변화로 인하여 산업사회에 존재하여 왔던 여가의 특성과는 달라졌으며, 현대사회에는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질이 일의 영역에서, 또한 여가의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어 여가활동이 팽배해 가고 있다.

현재 대표적으로 선택되는 야외 여가활동으로 캠핑과 수상레저스포츠, 그리고 스키와 스노보드를 꼽을 수 있다. 스키·스노보드는 과거 소수의 마니아들이 즐기는 귀족스포츠에서 현재는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대중화된 스포츠로 발전하였다. 주말이면 길게 늘어선 리프트의 탑승 대기인파는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게 되었다[1].

1988년 10개소이던 국내 스키리조트는 2015년 경기 6개소, 강원 10개소, 충북 1개소, 전북 1개와 경남 1개소 등 총 19개로 증가하였다. 그동안 스키리조트들은 고객의 폭발적 수요증가로 대규모 투자 및 개발을 진행하였다.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스키리조트 이용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반면 스키리조트들에게는 고객확보라는 치열한 경쟁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2]. 스키리조트들은 국내 고객뿐만 아니라 해외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 및 마케팅을 기획하여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다.

이처럼 심화되고 있는 경쟁구도에서 스키리조트가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방문하는 충성고객의 확보가 중요하다. 신규고객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기존고객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보다 5배 이상 소요되며(Rust & Zahornik, 1993), 고객유지율을 5%로 높이면 장기적 수익률은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icheld, 1993).

따라서 스키리조트들에게 있어서 고객들이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방문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오

준석[1], 구강본[3], 박명국과 유현순[4], 박인수[5], 박찬규[6], 여환립 등[7], 유현순 등[8], 이귀옥 등[9], 이남미와 이근모[10], 이승철과 심상신[11], 이종호[12], 이종호와 최진혁[13], 이지환과 김태형[14], 이충영과 김정모[15], 최창규와 한상덕[16], 한정훈[17], 허승욱과 백원철[18], 홍설의[19]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서비스 품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스키나 스노보드와 같은 여가활동을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내적인 선택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적 변인의 관계를 규명하여 여가활동의 지속적 참여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여가활동의 경우 취미생활이나 시간 때우기, 스트레스 해소 등의 소극적인 의미보다는 전문적이면서, 몰입경험의 증가를 통한 자기개발과 자아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20].

여가몰입(leisure flow)란 인간 삶에 있어 최고 감정, 최상의 즐거운 경험, 행복한 심리상태[21], 활동 중 도전과 기술이 균형으로 자극되는 최적 각성 상태[22], 여가활동에 완전히 빠져들고 내적으로 동기화되는 상태로 활동 중의 최적 경험과 유사한 경험으로 개인의 능력과 주어진 환경사이에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즐거운 심리상태[23]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여가몰입은 여가 참가와 만족의 중요한 동인으로서 작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특정 스포츠종목과 관련하여 많은 유사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몰입경험과 여가만족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몰입경험이라는 동인의 심리적 이득만을 관련지어 다소 편중된 연구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여가만족이라는 심리적 이득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문화적 및 자아실현적 측면과 같은 다른 여러 측면에 대한 통합적인 여가이득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24].

현대사회에서 여가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현상은 여가활동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유대관계의 증가와 체력의 증대를 통한 생활의 활력소 증대 등의 효과를 얻어 생활의 만족감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여가활동을 통해

생활의 만족감은 얻은 사람들은 또 다시 생활만족감을 얻기 위해 여가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스키나 스노보드는 종목의 특성상 초보자의 경우는 속도감에서 오는 공포를 극복하고자 몰입하게 되고 중·상급자의 경우는 자세와 장비컨트롤을 위하여 몰입하게 된다[25]. 즉 스키와 스노보드는 몰입을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여가활동으로 몰입경험을 측정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여가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학생은 스키장 이용이 가장 활발한 집단 중 하나로 스키를 통한 여가몰입을 측정하는데 가장 적합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의 잠재적인 시장으로서 대학생 계층은 스키리조트들에게는 중요한 표적시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을 목표시장으로 설정한 시장세분화, 마케팅전략, 서비스 확대 등의 노력은 부족한 현실이다[15].

따라서 본 연구는 스키리조트를 방문한 대학생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여가몰입, 여가이득, 생활만족과 재방문의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스키리조트를 재방문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스키리조트들이 대학생 표적시장을 위한 마케팅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공과 전략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여가몰입

Csikszentmihalyi[26]의 몰입경험이론에 이론적 근간을 두고 있는 여가몰입의 개념은 최근 여가를 설명하는데 있어 가장 설득력있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16]. Csikszentmihalyi[26]는 몰입을 최적의 심리상태로 기술하면서, 인간의 삶에 있어 최고의 감정, 최상의 즐거운 경험, 행복한 상태를 몰입경험(flow experience)이라고 하였다.

여가몰입은 주로 여가로 간주되는 활동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여가활동에서는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환경의 난이도를 변경시키는 것이 용이하

고 만일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주어진 환경의 난이도에 적합하도록 개인적 기량의 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27].

여가몰입은 여가활동을 지속하려는 욕구와 결심을 표현하는 심리적 구조이며[28], 여가참여에 대한 애착의 심리상태[29]를 의미한다[27]. 여가행동에 대한 몰입 연구를 처음으로 시작한 체육학분야에서는 여가몰입을 스포츠나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확신할 신념이나 희망, 기대, 약속을 스포츠 몰입, 여가몰입, 혹은 관여도라고 표현하였다[30]. 몰입에 대한 다른 연구에서는 몰입과 유사한 용어로 최적경험(optimal experience), 최고수행(peak performance), 절정체험(peak experience) 등을 사용하였다. 김미향[31]은 몰입과 유사한 개념과 용어에서 재미, 즐거움, 기쁨, 호기심, 시간의 망각 등이 공통적인 구성요소들이 추출해 내었다. 백현[32]은 Csikszentmihalyi[26]의 연구를 토대로 여가몰입은 명확한 목표, 통제 감각, 무아경, 시간감각의 변형, 자기목적체험 등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최근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에서 있어 여가몰입이 주요 매개변인으로 설정되고 있는데, 이는 환경적 변인보다 사회 심리적 변인이 여가행동과 여가몰입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33]. 여가로서 스포츠활동에 몰입하는 정도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단순한 스포츠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통해서 자기개발 측면에서 통제능력, 창조적 표현능력 등을 함양하게 되고 사회적 소외로부터의 탈피, 건강유지, 스트레스 해소 등의 긍정적 이득을 얻게 되므로 여가몰입은 여가이득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서 그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34].

2. 여가이득

여가몰입이 여가경험 과정 전체를 파악하는 도구라면 여가이득은 경험의 결과를 측정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24]. 지금까지 여가활동 경험의 결과를 측정하기 사용된 여가만족의 개념은 심리적 이득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여가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및 자아실현적 측면과 같은 다른 여러 측면에 대한 통합적인 이득 측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런 통합적인 이득의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 중 선구자로는 Schreyer와 Driver[35]를 지목할 수 있다. 이들은 “The benefit of leisure”라는 저서를 통해서 여가를 통한 이득의 개념과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Driver[36]는 여가이득(BAL: Benefits Approach to Leisure)의 개념과 연구방법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BAL의 창시는 1990년대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소수 선진 국가들에서 이 분야 연구활동을 촉진시켰다[24].

여가이득은 여가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다양한 부분에서의 이득 또는 긍정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Edgar와 Thomas[21]는 여가이득에 대한 특정한 타입과 일반적인 범주를 설명하면서 여가이득에는 개인적 이득(심리적, 개발과 성장, 평가와 만족), 정신 생리학적인 이득, 사회적·문화적 이득, 경제적 이득, 환경적인 이득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여가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심리적으로나 정신 생리학적으로 다양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가이득은 여가스포츠 활동 참가자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있다[34].

이제는 단순히 여가활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만족감을 측정하기 보다는 여가를 통해서 참가자들이 얻게 되는 여가이득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여가이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3. 생활만족과 재방문의도

생활만족은 현재 자신의 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이나 만족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복지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37]. 생활만족이라는 개념이 일반화된 것은 1961년 Neugarten, Havighurst와 Tobin이 노인의 생활만족지수를 개발한 이후로 보고 있다. 그 이후 1979년 George가 생활만족도를 새로이 개념 정의하기 이전까지 생활만족이라는 개념은 주로 사기, 행복, 심리적 안녕, 적응, 삶의 질 등의 용어와 상호 교환적으로 또는 혼용되어 왔다[38][30].

생활만족은 긍정적인 자아존중과 생활의 질, 복지, 행복 등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주관적이고 상대

적인 개념을 담고 있다. Kalish[40]는 생활만족도를 자신의 생애를 의미있게 받아들이고 적어도 중요한 목표를 성취하였다고 느끼며, 효율적으로 주위의 환경과 잘 적응하여 정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생활만족이란 생활 전체에 대한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 감정이며 일종의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생활의 실제와 기대 간의 일치에서 오는 개인의 관점에 따른 주관적, 개인적 현상으로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30][41].

생활의 만족은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객관적·물질적인 것은 국민소득과 같이 물질적인 삶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며, 주관적·비물질적인 것은 교육, 문화 등 비물질적인 삶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주관적·물질적인 것은 소득, 소비 등 물질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 그리고 주관적·비물질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 그리고 주관적·비물질적인 것은 건강, 여가 등과 같은 비물질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다[42].

여가활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심신의 건강을 도모하고 삶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요구에 관련된 활동을 할 때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자신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활동을 할 때는 즐거움을 느끼며, 그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여가에 대한 만족감을 얻고, 그러한 정서의 정도에 따라 몰입에 정도가 다르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만족감이 생활전반에 전이됨으로써 생활만족도가 증대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43]. 이러한 생활의 만족을 얻기 위해 또 다시 사람들은 여가활동에 지속적인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다[44].

생활만족 이외에 여가활동의 지속적 참여나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몰입경험을 있다. Fox 등[45]은 자신의 운동능력에 대한 높은 신뢰, 몰입이 스포츠참가의 지속을 이끌어낸다고 하였으며, 서희

진과 김용준[46]의 연구에서 운동지속 및 포기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개인의 운동의 몰입은 운동지속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운동능력이나 운동에 대한 흥미, 기대감, 몰입이 높을수록 운동지속의사가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운동에 대한 몰입, 흥미 등의 내재적 보상이 지속적인 스포츠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47]고 제안하고 있는 바, 여가스포츠에 대한 몰입, 흥미를 유지시키는 것은 운동지속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

여가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득은 여가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활동성이 많이 요구되는 여가활동의 참여는 스트레스해소, 자기통제능력의 향상, 일상생활에 필요한 긍정적 자극 유발, 체력증진과 타인과의 친목도모와 같은 여가이득에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48]. 이러한 여가이득의 증가는 곧바로 여가지속행동으로 이어져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스키리조트를 지속적으로 재방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과 가설의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인 대학생 스키리조트 이용객의 여가몰입, 여가이득, 생활만족과 재방문의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을 하였다.

먼저 몰입경험과 여가이득의 관계는 항공스포츠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김정렬[49]의 연구, 여가스포츠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김준과 이근모[34]의 연구, 교양댄스 강좌 참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김지영 등[50]의 연구, 여가스포츠 참가자를 대상으로 이계석 등[51]의 연구와 당구동호인을 대상으로 한 이장희[24]의 연구에서 여가몰입이 여가이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여가몰입은 여가이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1을 설정하였다.

여가몰입과 생활만족의 관계에 관해서는 여가활동 참여자의 여가몰입경험이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서수연과 김송희[52]의 연구, 골프이용객의 몰입경험이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안병욱 등[53]의 연구, 패러글라이딩 참여자의 여가몰입이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윤영선[54]의 연구에서 여가몰입이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형상[55], 조건상과 박충진[56], 지민준[57]의 연구에서도 여가몰입은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가설 2 “여가몰입은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설정하였다.

여가경험과 재방문의도의 관계는 사관생도의 무도수업에 관한 김병주 등[58]의 연구, 동계스포츠 참가자를 대상으로 박형준[25]의 연구, 스포츠 센터 회원을 대상으로 한 백현과 심상신[59], 임태성과 이호열[20]의 연구, 해양스포츠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조성균 등[60]의 연구에서 여가몰입이 여가지속 또는 재방문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가설 3 “몰입경험은 재방문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설정하였다.

여가이득과 생활만족간의 관계는 수영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조건상과 박충진[56]의 연구에서 여가이득이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가설4 “여가이득은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설정하였다.

여가이득과 재방문의도의 관계는 여가스포츠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김준과 이근모[48]의 연구에서 여가이득이 여가지속행동인 반복적인 참여의사와 구전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가설 5 “여가이득은 재방문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설정하였다.

생활만족과 재방문의도의 관계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생활만족도가 지속적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고대선[44]의 연구결과와 트라이애슬론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생활만족도가 지속적 참여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전병은 등[61]의 연구결과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가설 6 “생활만족은 재방문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설정하였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지금까지의 설정된 연구 가설과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 가설1. 여가몰입은 여가이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 여가몰입은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3. 여가몰입은 재방문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4. 여가이득은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5. 여가이득은 재방문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6. 생활만족은 재방문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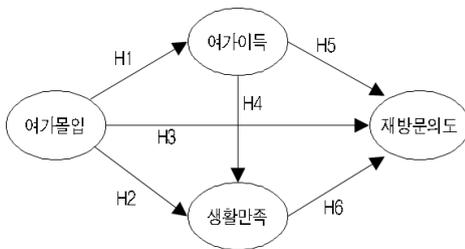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측정척도의 구성

여가몰입은 여가활동이 즐겁고 재미있어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심취해 있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 여가몰입의 측정은 Csikszentmihalyi[28], Omedei와 Wearing[62], 이종길[63]과 김송희[64]의 연구를 참고하여 이종경[65]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측정문항은 일체감, 정신적 집중, 완전 몰입, 시간개념 상실 등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여가이득은 여가활동 참가자가 여가활동 및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심리적 이득, 자기계발 이득, 개인적만족 이득, 신체적 이득과 사회적 이득을 의미한다. 여가이득의 측정은 Driver[36]가 사용한 여가이득척도 (Leisure Benefits Scale: LBS)를 이장희[24]와 김준과 이근모[34], 장선애[66]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이득, 자기계발 이득, 개인적만족 이득, 신체적 이득, 사회적 이득의 5개 하위변인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생활만족은 현재의 자신의 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이나 만족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Diener[67], 이종길[63], 심상신[68], 이려정[37]의 연구에서 사용된 5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재방문의도는 “기회가 된다면 다시 방문하겠다”의 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측정변수들은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료의 수집은 스키 교양수업 참가를 위하여 스키리조트를 방문한 강원도 S대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사전에 교육을 받은 조사자가 연구의 목적과 설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뒤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조사기간은 2015년 12월 19일부터 12월 28일까지 10일간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회수된 설문지는 총 233부였으며, 이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응답이 누락되어 분석에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설문지 4부를 제외한 총 229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 다항목으로 측정된 변인들의 타당도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뢰도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의 검증을 위해서는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과 신뢰도 분석은 SPSS 22.0 통계프로그램을,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은 LISREL 8.72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V. 실증분석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에 응답한 229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학년, 스키경험 등을 조사하여 [표 1]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173명(75.5%), 여성이 56명(24.5%)으로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76명(33.2%), 2학년이 77명(33.6%), 3학년이 39명(17.0%), 4학년이 37명(16.2%)로 나타났다. 스키경험은 ‘있다’가 157명(68.6%), ‘없다’가 72명(31.4%)로 나타났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수	구성비(%)
성별	남	173	75.5
	여	56	24.5
학년	1학년	76	33.2
	2학년	77	33.6
	3학년	39	17.0
	4학년	37	16.2
스키경험	있다	157	68.6
	없다	72	31.4

2. 신뢰도 분석과 타당도 분석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측정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가몰입을 측정하기 위한 4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843이었다. 여가이득은 심리적 이득, 자기계발이득, 개인적 만족 이득, 신체적 이득, 사회적 이득의 5개 세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별 신뢰도계수는 .903, .896, .881, .904, .894로 나타났다. 생활만족의 측정은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계수는 .899로 나타났다. 재방문의도는 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표 2. 측정척도의 신뢰도분석 결과

변인	몰입 경험	여가이득					생활 만족
		심리	자기 계발	개인	신체	사회	
신뢰도계수	.843	.903	.896	.891	.904	.894	.899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잠재변인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GFI, AGFI, CFI, NFI, RMSEA 등의 적합도지수를 사용하였다. GFI, AGFI, CFI, NFI의 경우 0.8이상이면 좋은 모형, 0.9이상이면 아주 좋은 모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RMSEA는 0.10이하이면 수용할 수 있으며, 0.05이하이면 매우 좋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39].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여가몰입, 여가이득과 생활만족에서 여가몰입, 심리적이득, 신체적이득과 생활만족의 RMSEA값을 제외한 모든 적합도 지수들이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절차를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변인	χ^2	df	GFI	AGFI	CFI	NFI	RMSEA	
여가몰입	17.79	2	.96	.81	.97	.97	.18	
여가이득	심리	24.40	2	.95	.75	.97	.97	.22
	자기	4.72	2	.99	.95	1.00	.99	.07
	개인	.093	2	1.00	1.00	1.00	1.00	.00
	신체	8.35	2	.98	.91	.99	.99	.11
	사회	4.84	2	.99	.95	1.00	.99	.07
생활만족	34.25	5	.94	.83	.98	.97	.16	

각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가 잠재변인을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는 Fornell과 Lacker의 공식을 사용하였으며, 이론적으로 개념신뢰도는 0.7이상, 분산추출지수는 0.5이상 되어야 잠재변인의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한다. [표 4]에서 나타난 것처럼 모든 잠재변인의 개념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가 기준을 만족하여 신뢰성과 수렴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4. 개념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

변인	몰입 경험	여가이득					생활 만족
		심리	자기 계발	개인	신체	사회	
개념신뢰도	.89	.93	.93	.91	.94	.93	.92
분산추출지수	.67	.78	.76	.73	.79	.77	.71

3.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여가몰입, 여가이득, 생활만족과 재방문의도 간의 관계에 대해 제안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여 [표 5]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분석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지수는 $\chi^2=185.36$, GFI=.89, AGFI=.83, CFI=.98, NFI=.97, RMSEA=.096으로 나타났다. 모든 적합도지수들이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을 수용하였다.

표 5. 연구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

구분	χ^2	df	GFI	AGFI	CFI	NFI	RMSEA
연구모형	185.36	60	.89	.83	.98	.97	.096

4. 가설의 검증

가설의 검증은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의 결과에서 변인들간의 추정된 경로계수와 경로계수에 대한 t값($t > 1.96$)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분석에서 제시된 변인들간의 경로계수와 t값을 살펴보았다. 여가몰입이 여가이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경로계수($\beta = .80$)의 t값이 13.21($t > 1.96$)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여가몰입이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는 경로계수($\beta = .08$)의 t값이 0.73($t < 1.96$)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여가몰입이 재방문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은 경로계수($\beta = .24$)의 t값이 2.18($t > 1.96$)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여가이득이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는 경로계수($\beta = .51$)의 t값이 5.55($t > 1.96$)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여가이득이 재방문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5는 경로계수($\beta = .26$)의 t값이 2.27($t > 1.96$)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생활만족이 재방문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6은 경로계수($\beta = .11$)의 t값이 1.48($t < 1.96$)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표 6. 가설 검증 결과

가설	가설경로	경로계수	표준오차	t값	채택여부
H1	여가몰입→여가이득	.80	.06	13.21	채택
H2	여가몰입→생활만족	.08	.11	.73	기각
H3	여가몰입→재방문의도	.24	.11	2.18	채택
H4	여가이득→생활만족	.51	.11	4.55	채택
H5	여가이득→재방문의도	.26	.11	2.27	채택
H6	생활만족→재방문의도	.11	.07	1.48	기각

연구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와 총효과를 요약하면 [표 7]과 같다. 여가몰입은 생활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가설이 기각되었으나, 여가이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몰입은 재방문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나타났지만, 여가이득과 생활만족을 통해 재방문의도에 간접적인 효과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가이득이 생활만족을 통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연구변인들간의 직·간접 효과

가설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여가몰입→여가이득	.80		.80
여가몰입→생활만족	.08	.41*	.50
여가몰입→재방문의도	.24	.26*	.50
여가이득→생활만족	.51		.51
여가이득→재방문의도	.26	.06	.31
생활만족→재방문의도	.11		.11

*: $t > 1.96$

V. 결론

본 연구는 스키리조트를 방문한 대학생의 여가몰입, 여가이득, 생활만족과 재방문의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과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스키리조트를 방문한 대학생 229명의 자료를 실체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모형분석과 가설 검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여가몰입은 여가이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경렬[49], 김준과 이근모[34], 김지영 등[50], 이계석 등[51], 이장희[2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여가몰입의 수준이 높은 고객들은 여가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라라는 심리적 이득, 균형있는 경쟁심 함양과 같은 성장이득, 신체적인 활력을 가져다주는 신체적 이득,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사회적 이득 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34]. 스키리조트들은 고객들이 여가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과 오락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여가활동 참가자들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자기개발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51].

둘째, 여가몰입은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가몰입이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서수연과 김송희[52], 안병욱 등[53], 윤영선[54], 박정민과 양정미[30], 전형상[55], 조건상과 박충진[56], 지민준[5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선행연구의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들이 여가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골프연습장 이용객이나 생활체육 동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반면에 본 연구는 스키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은 변인들간의 간접경로를 분석한 추가분석에서 여가몰입이 여가이득을 통해 간접적으로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셋째, 여가몰입은 재방문의도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병주 등[58], 박형준[25], 백현과 심상신[59], 임태성과 이호열[20], 조성균 등[6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여가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게 된다면 여가몰입을 자주 경험하며 즐기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경험은 여가활동을 지속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69]. 결과적으로 여가활동에 몰입하게 되면 다른 참여자들과 자신을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동일시하게 되고 정서가 완화되어 자신의 여가활동을 지속

하기 위한 시간적, 경제적 투자와 노력을 하고 이를 주변에 전파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는 것이다[25].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특정 활동에서의 몰입경험은 여가활동의 다양성이나 활동수준과 같은 양적 측면보다는 활동과정에 일어나는 질적 측면인 여가몰입경험이 생활만족과 지속적인 행동참가에 더욱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60]. 따라서 스키리조트들은 대학생 고객들이 여가몰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환경의 개선과 고차원적인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통해 고객들이 재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여가이득은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수영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조건상과 박충진[5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조건상과 박충진[56]은 여가에서 얻어지는 이득이 많을수록 생활만족이 높아진다는 결과는 수영참여자 가 어떠한 기술이나 자신의 자아성취를 중심으로 활동하기 보다는 자신의 신체적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다양함에서 생활의 만족감을 얻는다는 내용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상덕과 임영삼[70]은 생활만족이 여가이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는 상반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기숙형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생활만족이 여가이득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이득, 심리적 이득, 개인적 이득과 신체적 이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여가이득과 생활만족의 관계에 있어서 방향성에 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나 여가이득이 여가만족의 확장된 개념이라는 측면에서는 여가이득이 생활만족의 선행변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섯째, 여가이득은 재방문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준과 이근모[4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김준과 이근모[48]는 여가스포츠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가이득이 여가 지속행동인 반복적인 참여의사와 구전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여가활동 참가자들은 여가활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스트레스 해소와 행복감, 통제능력과 자신감, 자유감과 자아실현, 창조적 표현능력의 함양과 생활의 자극을 느끼

고, 신체적 활력과 체력의 증진과 같은 건강 유지와 타인과의 밀접한 관계 형성 통한 사회적 소외의 탈피 등의 긍정적인 이득을 얻게 되므로 피, 건강유지, 스트레스 해소 등의 여가이득이 크다고 느낄수록 여가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도 커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스키리조트들은 대학생 고객들의 지속적인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스키·스노보드를 통해 얻게 되는 다양한 이득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이벤트 등을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생활만족은 재방문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속적 참여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고대선[44], 김상유 등[71], 전병은 등[6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생활만족 외에 재참가의도의 선행변인으로 고려된 변인은 참여동기[61]와 신체적 자기개념[44]과 수업만족[71]이다. 따라서 여가활동의 재참가의도나 지속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으로 생활만족보다는 여가몰입과 여가이득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연구를 수행하면서 나타난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을 1개 대학에서 스키리조트를 방문한 대학생들을 한정하여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포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변인들간의 구조적 관계에 집중하여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하위변인들간의 세부적인 영향력 등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하위변인들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스키리조트들이 대학생을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프로그램의 구성이나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오준석, “국내 전체 스키리조트의 서비스품질이

이용자의 만족도 및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2권, 제6호, pp.785-796, 2013.

[2] 정정희, 김용만, “스키리조트 소비자자가치가 스키리조트감정, 소비 삶의질 평가 및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제17권, 제6호, pp.13-25, 2012.

[3] R. T. Rust and A. J. Zahornik, “Customer Satisfaction, Customer Retention and Market Share,” *Journal of Retailing*, Vol.69, No.2, pp.193-215, 1993.

[4] F. F. Reicheld, “Loyalty-based management,” *Havard Busoness Review*, Vol.71, Maech-April, pp.64-73, 1993.

[3] 구강분, “스키리조트의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 및 재방문의도와와의 관계,”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제11권, 제4호, pp.87-98, 2006.

[4] 박명국, 유현순, “스노우보드 소비자의 서비스품질, 서비스가치, 고객만족, 고객충성도의 구조관계,” 한국체육학회지, 제49권, 제6호, pp.437-448, 2010.

[5] 박인수, “스키장 이용객의 지각된 서비스품질, 고객만족, 고객몰입 및 재방문의사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37권, 제1호, pp.291-301, 2009.

[6] 박찬규, “스키리조트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 고객태도의 관계: 보광 휘닉스파크 이용객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제45권, 제4호, pp.349-359, 2006.

[7] 여환립, 김관수, 김태훈, “스키리조트 서비스품질, 고객만족, 전환장벽 요인이 고객유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비스경영학회지, 제9권, 제4호, pp.111-133, 2008.

[8] 유현순, 이상일, 송희정, “스키장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도 및 재구매의사의 인과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30권, pp.137-150, 2006.

[9] 이귀옥, 장경수, 김형섭, “스키리조트의 서비스품질이 서비스가치, 방문자만족과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제18권, 제1호, pp.57-79, 2003.

- [10] 이남미, 이근모, “스키장 서비스품질이 대학스키 수업참가자들의 재이용의사와 소비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제42권, 제1호, pp.421-432, 2003.
- [11] 이승철, 심상신, “비수기 스키리조트 서비스품질이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제41권, 제1호, pp.247-258, 2002.
- [12] 이종호, “스키리조트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44권, 제1호, pp.173-184, 2011.
- [13] 이종호, 최진혁, “스키리조트 서비스품질, 서비스 가치, 고객만족도, 행동의도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제16권, 제1호, pp.1-14, 2011.
- [14] 이지환, 김태형, “스키리조트 참여종목에 따른 서비스품질, 서비스가치와 고객만족, 고객충성도의 구조적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38권, 제1호, pp.169-180, 2009.
- [15] 이충영, 김정모, “동계스키수업 참여 대학생이 지각하는 스키장 서비스품질이 만족도 재방문의사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4권, 제1호, pp.165-174, 2015.
- [16] 최창규, 한상덕, “스키리조트의 지각된 서비스품질, 서비스가치, 고객만족 및 고객애호도의 인과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제19권, 제1호, pp.361-375, 2010.
- [17] 한정훈, “스키리조트 서비스품질, 서비스가치, 고객 만족도 및 재방문의도간의 인과관계,” 한국체육학회지, 제46권, 제2호, pp.227-238, 2007.
- [18] 허승욱, 백원철, “스키장 이용객의 지각된 서비스품질, 서비스가치, 고객만족 및 고객충성도의 관계,” 한국스포츠학회지, 제11권, 제2호, pp.209-223, 2013.
- [19] 홍설희, “스키리조트 서비스품질 기대치, 방문자 만족, 행동의도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44권, 제3호, pp.631-643, 2005.
- [20] 임태성, 이호열, “여가스포츠 참여자의 참여동기와 관여도, 몰입경험 및 지속적 참여의도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34권, 제2호, pp.1567-1580, 2008.
- [21] L. J. Edgar and L. B. Thomas, *Leisure Studies*, Pennsylvania States Collage: Venture Publishing, 1998.
- [22] M. D. Decloe, A. T. Kaczynski, and M. E. Havitz, “Social participation. flow and situational involvement in recreational physical activity,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41, No.1, pp.73-90, 2009.
- [23] 김충언, *공연예술활동과 스포츠활동의 생홉만족도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24] 이장희, *당구 참여자들의 여가몰입과 여가이득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25] 박형준, “동계스포츠 참여자의 몰입경험이 여가 정체성 및 여가지속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38권, 제2호, pp.63-73, 2014.
- [26] M. Csikszentmihalyi, *Beyond boredom and anxiety*, San Francisco: Jossey-Bass, 1975.
- [27] 권현재, *여가행동과 여가몰입이 모험관광 참여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28] J. H. Kerr, *Motivation and emotion in sport: Reveral theory*, Psychology Press a Member of the Taylor & Francis Group. T. K. Scanlan, P. J. Carpenter, G. W. Schmidt, J. P. Simons, and B. Keeler, An introduction to the sport commitment model,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Vol.15, pp.1-15, 1993.
- [29] V. Johnson, I. C. Sarson, and J. M. Siegel, “Arousal seeking as a moderate of life stress,” *Preceptual and Motor Skills*, Vol.49, pp.656-666, 1979.
- [30] 박정민, 양정미, “항공기 승무원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 직무만족, 여가몰입 간의 영향관계,” *관광·레저연구*, 제27권, 제6호, pp.233-252, 2015.
- [31] 김미향, *몰입 및 근거 이론적 접근을 통한 스키 매니아의 경험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 위논문, 2001.
- [32] 백현, *여가스포츠 참여자의 여가경험과 여가기능, 몰입경험 및 운동지속의사의 관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33] 안혜영,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만족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4권, 제1호, pp.139-160, 1995.
- [34] 김준, 이근모, “여가스포츠 참가자의 여가기술 및 여가몰입이 여가이득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21권, 제4호, pp.771-787, 2008.
- [35] R. Schreyer and B. Driver, *The Benefits of Leisure*, In E. Jackson & T. Burtob(eds), *Understanding leisure and recreation: Mapping the past, charting the future*(pp.385-419), State College. PA: Venture Publishing, 1989.
- [36] B. Driver, *The north American experience in measuring the benefits of leisure*. In E. Hamilton Smith(ed), *Proceedings, National Workshop on measurement of Recreation Benefits* (pp.1-57), Bandoora Australia: Philip Institute of Technology, 1990.
- [37] 이려경, “대학생의 여가활동과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 간의 영향 연구: 동적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제23권, 제7호, pp.489-509, 2011.
- [38] N. J. Graney, “Happiness and social participation in aging,” *Journal of Gerontology*, Vol.30, pp.701-706, 1975.
- [39] 배병렬, *구조방정식모델: 이해와 활용*, 도서출판 대경, 2000.
- [40] R. A. Kalish, *Late Adulthood Perspectives on Human Development*, Books Cole Publishing Company, 1975.
- [41] 김명자, *여가활동과 행복한 노후생활의 향유에 관한 연구: 서울시 거주노인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42] 조명환, 김희진, 최정순, *여가탐구생활*, 서울: 백산출판사, 2010.
- [43] 정용각, “여가운동 참가자 성격의 Big-5 요인과 정서의 관계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제39권, 제4호, pp.265-275, 2000.
- [44] 고대선, “스포츠에 참여하는 여대생들의 신체적 자기개념이 생활만족도와 지속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21권, 제3호, pp.681-697, 2008.
- [45] K. R. Fox, W. Ickes, and W. P. Morgan, “Female physical estimation and attraction to physical activity,” *Journal of Sport Psychology*, Vol.7, pp.125-136, 1985.
- [46] 서희진, 김용준, “중·고등학교 운동선수의 스포츠참가요인과 운동선수 만족, 운동지속 및 탈퇴의사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제44권, 제2호, pp.971-107, 2005.
- [47] E. E. Snyder and E. Spreitzer, “Participation in sports as related to educational expectations among highschool girls,” *Sociology of Education*, Vol.50, pp.78-90, 1977.
- [48] 김준, 이근모, “여가스포츠 참가자의 여가기술 및 여가이득이 여가 지속행동에 미치는 영향,” 체육과학연구소 논문집, 제26권, pp.1-11, 2010.
- [49] 김경렬, “항공스포츠 교관의 지도유형, 여가몰입 및 여가이득의 인과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50권, 제1호, pp.629-637, 2012.
- [50] 김지영, 박인실, 김수현, “교양 댄스 강좌 참여 대학생들의 여가유능감이 여가이득에 미치는 영향: 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체육교육학회지, 제17권, 제1호, pp.83-96, 2012.
- [51] 이계석, 최성범, 한태용, “여가스포츠 활동 참여자의 여가만족이 여가몰입 및 여가이득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제33권, 제2호, pp.423-431, 2014.
- [52] 서수연, 김송희, “여가 활동 참여자의 몰입경험과 생활만족과의 관계,” 한국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30권, 제4호, pp.181-191, 2006.
- [53] 안병욱, 조원득, 이세중, 임영삼, 김준성, “골프 이용객의 라이프스타일과 여가활동 참여 동기,

몰입경험, 생활만족간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34권, 제1호, pp.7-17, 2010.

[54] 윤영선, “패러글라이딩 참여자의 여가몰입이 여가정체성 및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34권, 제2호, pp.195-204, 2010.

[55] 전형상, “생활체육 몰입경험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효과,”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19권, 제2호, pp.1001-1010, 2003.

[56] 조건상, 박충진, “수영 참여자의 참여동기와 여가이득 및 생활만족의 관계모형,” 한국체육과학회지, 제18권, 제4호, pp.201-211, 2009.

[57] 지민준, “체육특기자 대학생의 여가활동 참여동기와 몰입경험, 여가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의 관계,” 코칭능력개발지, 제9권, 제2호, pp.381-390, 2007

[58] 김병주, 전상운, 최진, “사관생도의 무도수업 교수행동인식에 따른 학습몰입과 수업만족도가 재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2권, 제2호, pp.299-316, 2013.

[59] 백현, 심상신, “여가스포츠 참여자의 여가경험과 여가기능, 몰입경험 및 운동지속의사에 관한 인과모형,” 한국체육학회지, 제50권, 제6호, pp.337-352, 2011.

[60] 조성균, 김종경, 이재돈,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참여동기, 여가몰입 및 여가지속의 인과관계,”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제15권, 제4호, pp.51-62, 2010.

[61] 전병은, 이상운, 김지영, “트라이애슬론 동호인의 참여동기, 생활만족도, 지속적 참여의도의 영향관계,” 한국체육학회지, 제53권, 제1호, pp.309-320, 2014.

[62] M. M. Omodei and A. J. Wearing, “Need satisfaction and involvement in personal projects: toward an integrative model of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9, pp.762-769, 1990.

[63] 이종길, *사회체육활동과 생활만족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64] 김송희, *여가활동참여자의 생활만족에 관한 구조모형분석*, 용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65] 이종경, *대학생의 여가스포츠에 대한 의사결정균형과 여가기능, 여가몰입, 여가유능감 관계의 구조모형분석*,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66] 장선애, *여가스포츠 참여자의 참여동기가 여가몰입 및 여가이득에 미치는 영향*, 송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67] E. Diener, “The satisfaction with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23, No.7, pp.71-75, 1985.

[68] 심상신, “대학생들의 체육수업 참여만족과 여가태도 및 학교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43권, 제1호, pp.309-314, 2004.

[69] 김인형, “댄스스포츠 매니아의 재미요인과 몰입경험 및 댄스스포츠 중독과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21권, 제1호, pp.129-149, 2008.

[70] 이상덕, 임영삼, “기숙형 대학생이 인지하는 여가유능감과 생활만족 및 여가이득과의 구조적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35권, 제4호, pp.7-18, 2011.

[71] 김상유, 이광수, 박상일, “중학생의 체육수업만족이 학교생활만족과 스포츠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0권, 제6호, pp.913-923, 201.

저 자 소 개

장 경 수(Kyoung-Su Jang)

중신회원



- 1994년 2월 : 계명대학교 관광경영학과(경영학 학사)
 - 1997년 2월 : 계명대학교 경영대학원 관광경영학과(경영학 석사)
 - 2002년 2월 : 대구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전공(경영학박사)
 - 2004년 9월 ~ 현재 : 상지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 <관심분야> : 문화관광, 축제·이벤트, 스포츠관광